

#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익산시, 금융기관·소상공인연합회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신규로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 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에 승풍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시장과 허동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장, 김양배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우 농협중앙회 익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최대 2년간(2022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기간 동안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익산지역 소상공인은 5천여명, 대출원금은 970여억원으로 이에 해당되는 이자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앞서 시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9월 초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익산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 정부 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해당 금융기관 정부 정책자금 대출자에 한함),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4~7등급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특례보증 대출자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1% 수준(4%까지 시 부담)으로 낮췄다.

또한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등 모든 신용등급에 걸쳐 금융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위안부 피해자의 숭고한 삶을”

### 익산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진행

익산시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기억하고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19년부터 매년 기림의 날인 8월 14일에 열리는 기념식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으며, 시민들에게 기림의 날의 의미를 알려주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행사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익산여성전화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익산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사업회와 함께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이다은 명장의 관소리를 시작으로 원음합창단의 공연, 조상익 교수의 색소폰연주, 한국생활음악

협회의 오키라나 연주 등의 추모공연으로 진행했다.

송용희 시인의 헌화시, 원광고1학년 학생과 송정화 동그라미플러스대표의 소감문 낭독이 이어졌다. 또 평화의 소녀상 기념포토존,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및 조례과정 전시, 필사 작업과 같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 시 관계자는 "오늘 우리 시는 위안부 피해자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기림의 날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여성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맞춤형 원예 품목 육성 경쟁력 '강화'

익산시가 지역 맞춤형 원예 품목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중심으로 품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원예산업 선도 지자체로 거듭날 방침이다.

이번 '중장기(2023년~27년) 원예산업발전계획'은 기존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원예 산업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관된 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수립될 예정이다.

기존 계획은 통합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농협·농업법인의 마케팅 통합 및 조직의 규모화는 진전되었으나 과수, 시설원예, 노지채소, 특용작물 등 기획생산과 유통 연계성이 미비하고 지역 원예산업 전진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마련된 발전계획은 우선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던 마케팅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고 품목 전문성을 강화한다.

시는 '원예산업발전계획'과 '과수산업발전계획'을 통합해 산지 유통과 과수 FTA 지원사업의 마케팅조직 체계를 일원화한다. 이어 생산자조직(농협·농업법인)의 농산물 취급 비중을 높이고 품목별 마케팅 통합 전문성을 높여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원예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조직의 원예산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조직별 전략 품목 우선 순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예비 전략 품목을 도출해냈다.

이를 토대로 TF팀은 전략·육성 품목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보조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러 지역 원예산업 전략적 육성을 목표로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전략품목 생산 계획 △전략품목 생산시설 및 생산기술 개선 △생산유통통합조직(혁신조직) 육성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및 운영체계 개선 △환경친화적 생산 및 산지유통 추진 △원예산업 거버넌스 구축·운영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원예산업발전계획은 이달 중 초안 작성과 정부 검토 및 의견 회신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한계를 보완해 품목별 생산조직과 계열화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품목을 육성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해 원예농산물 육성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주관한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동시에 1조개소 평가 대상 중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두는 등 원예산업 분야 전국 대표 지자체로 거듭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필수

군산시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원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원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고 과태료의 경우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한선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몰수까지 가능하다.

군산=김판근기자

### 군산시, '올해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을 매년 평가(정량, 정성)하는 제도다. 지난 11일 실시한 이번 보고회는 신규 지표(6개)와 지난해 미달성 지표(2개)에 대해 추진사항과 목표달성을 위한 면밀한 분석 등 집중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3위 성적의 성과를 거뒀으며, 2022년 도 재정인센티브 4,875만원(2022년 예산편성 집행)을 확보해 우수부서 포상금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홍보물품 제작 등 4개 사업에 지원했다.

황철호 부시장은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는 군산시 행정역량을 알 수 있는 정부 기준이므로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시킬 바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8월에는 62개 정량 지표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 직영교육'을 추진할 바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 “고마웠어 군산! 잘 부탁해 울릉!”

### '제3회 섬의 날 행사' 폐막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섬, 대한민국을 띄운다'라는 주제로 군산(비금컨벤션센터(CSC))와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열린 제3회 섬의 날 행사가 막을 내렸다.

'섬의 날(매년 8월8일)'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8년 3월 '섬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섬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정된 정부 기념일이다.

행사 첫날인 8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전서관 운영, 섬 발전사업 워크숍, MBC M 쇼챔피언, 섬 가왕대전, 라이브커머스, 선유도 불꽃놀이 및 드론쇼 등의 부대행사가 14일까지 이어졌다.

8월의 무더위와 코로나19 재유행, 막바지 집중호우 등 관람객들에게 아쉬움이 남을 수 있었지만, 시원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실내에 조성된 전서관 관람과 수많은 깜짝 이벤트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며 아쉬움을 날려버렸다.

특히, 13일에 진행된 선유도 불꽃놀이와 드론쇼는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면서, 고군산군도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섬 발전사업 워크숍 및 '한국섬포럼' 국제학술회의 등의 지속적개최를 통해 섬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알리고, 섬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고, 섬이 미래 성장의 발판으로서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과제로 남겼다.

제4회 섬의 날 행사는 오는 2023년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울릉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사하면서, 고군산군도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섬 발전사업 워크숍 및 '한국섬포럼' 국제학술회의 등의 지속적개최를 통해 섬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알리고, 섬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고, 섬이 미래 성장의 발판으로서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과제로 남겼다.

제4회 섬의 날 행사는 오는 2023년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울릉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 군산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군산시는 15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축식은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군산·김제·부안연합회 주최로 부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학생,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독립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소리엘어린이중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와 경축사, 광복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전년권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군산·김제·부안연합회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 선열들의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자

금심을 가지고 전 시민이 결집하여 슬기롭게 현재의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황철호 군산부시장은 "우리 안에 살아 숨 쉬는 광복정신을 토대로 늘 그 래왔던 것처럼 힘을 모아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찬 군산을 같이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축식 후 광복회원들은 은파호수공원 내 군옥출신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